

성 클레멘테 성당 한인공동체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San Clemente Mission Parish

주임신부 전흥식 요아킴 | Tel (661) 871-9190 | 1305 Water St., Bakersfield, CA 93305
 Fax (661) 873-7286 | 홈페이지 www.sanclementemission.org | 통권 제 28 권 3 호



주일 미사: 오전 8 시 (한국어, 영어), 오전 9 시 30 분(영어), 오전 11 시(스페인어)
 토요일 미사: 오후 6 시(스페인어)
 평일미사: 월, 화, 목요일에는 오후 6 시. 금요일에는 오전 9 시 30 분
 고백성사: 월, 화, 목요일 평일미사 전 (오후 5:30 ~ 5:50) 또는 시간약속을 요함.
 성체조배: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
 평신도 협의회 임원회의: 매월 둘째 일요일 오후 7 시
 성당사무실 시간: 화요일 ~ 금요일(9:30AM ~ 6:00PM)
 한인 공동체 이메일: sanclemente.kc@gmail.com

미 사 성 가	입당 (329)	봉헌 (220)	성체 (153)	파견 (34)
---------	----------	----------	----------	---------

<p>제1독서 요나 3,1-5.10 화답송 시편 25(24),4-5ㄱ나.6과 7나.8-9(◎ 4가) ◎ 주님, 당신의 길을 알려 주소서. ○ 주님, 당신의 길을 알려 주시고, 당신의 행로를 가르쳐 주소서. 저를 가르치시어 당신 진리로 이끄소서. 당신은 제 구원의 하느님이시옵니다. ◎ ○ 주님, 예로부터 베풀어 오신 당신의 자비와 자애 기억하소서. 주님, 당신의 자애에 따라, 당신의 어지심으로 저를 기억하소서. ◎ ○ 주님은 어질고 바르시니, 죄인들에게도 길을 가르치신다. 가련한이 올바른 길 걷게 하시고, 가난한이 당신 길 알게 하신다. ◎ 제2독서 1코린 7,29-31 복음환호송 마르 1,15 ◎ 알렐루야. ○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 복음 마르 1,14-20</p>	<p>성소를 위한 기도 ○ 좋으신 목자 예수님,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부르시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 비오니, 오늘도 믿음직한 젊은이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소서. ○ 온 인류의 구원을 바라시는 주님, 온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빛과 사랑의 불을 갈망하고 있사오니 ● 많은 젊은이들이 그 갈망에 응답하여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 주님, 슬기로운 여성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께 자신을 봉헌하여 복음의 완력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 또한 주님의 몸인 교회에 봉사하며 도움과 사랑을 애타게 바라는 이웃들에게 헌신하게 하소서. ◎ 아멘.</p>
------------------------------------------------------------------------------------------------------------------------------------------------------------------------------------------------------------------------------------------------------------------------------------------------------------------------------------------------------------------------------------------------------------------------------------------------------------------------------------------------------------------------------------------------------------------------------------------------------------	----------------------------------------------------------------------------------------------------------------------------------------------------------------------------------------------------------------------------------------------------------------------------------------------------------------------------------------------------------------------------------------------------------------------------------------------------------------------------------------------------------------------------------------------------------------------------------------------

◆ 주일 미사 전례 봉사자 ◆

날짜	미사해설	독서	복사
1/21	이 마틸다	이 바오로 / 김 유스티나	박 다니엘
1/28	이 그레이스	이 요한 / 김 헬레나	박 다니엘
2/4	이 마틸다	이 바오로 / 김 유스티나	박 다니엘
2/11	유 요한	이 요한 / 김 헬레나	박 다니엘

영어독서:

우리의 정성

지난 주일	봉헌금	2 차 봉헌	교무금
	\$235	\$	\$1,220

성당 청소 봉사자 일정

청소시간은 매주 토요일, 오후: 3 시 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이 요한 총무님께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1/20	김 요아킴/ 고 안나	2/24	오 베드로/ 오 루시아
1/27	김 유스티노/김유스티나	3/3	김 마론/ 최 마테오
2/3	이 바오로/ 이 빅토리아	3/10	손 아놀드/ 손 쟈마
2/10	김 헬레나/ 박 세라피나	3/17	이 글라라/ 김 글라라
2/17	황 가롤로/ 김 안드레아	3/24	이 안드레아/ 이 안젤라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한 기도' 를 부탁드립니다.

공동체나 이웃에서 병환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조속히 병환과 어려움을 이겨내시길 바라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성체조배 안내: 매달 첫째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

오는 성체조배는 2 월 1 일 입니다.

한인공동체 임원회의: 매달 둘째주 일요일 오후 7 시

오는 임원회의는 2/11/18 오후 7 시에 있습니다.

공동체 소식

공동체 기도 성가 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8:00

문의: 박 바오로 (661-342-7130)

모임 장소: 10907 Prairie Stone Pl, Bakersfield, CA 93311

새 가족을 환영합니다 (미사 후 새가족 환영식사가 마련됩니다.)

우리 한인공동체에 새 가족이 오셨습니다.

박은진-벨라뎃다 자매님, 정이진-루시아 자매님

Apricot G Acupuncture & Wellness

2910 F St. F-11(2nd Floor) 93301

정세현-레오 형제님, 황연경-안나 자매님, 녀: 정한나-아나스타사

황인범-가롤로 형제님, 자: 황태양-스테파노, 녀: 황지호-스텔라

**** 성가책을 돌려주세요 ****

우리 공동체가 사용하는 성가책이 많이 부족합니다.

혹시 가정으로 가져가셨다가 안가져오신 성가책이 있으면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2018 년도 매일미사 책값 안내

2018 년도 미사책값이 일년치 50 불, 권당 5 불 로 책정 되었습니다. 각 가정에 매달 필요하신 권수대로 이그레이스 자매님께 미리 납부 해주시기바랍니다.

본당 재정 사정으로 미사책 값을 납부하신 수 대로 책을 주문하고 그 분에 한하여 미사책을 나눠드리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018 년도 소공동체 모임 시작 및 성경공부

곧 매달 세번째 주일에 소공동체 모임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 주를 뺀 나머지 주일에는 유요한 형제님이 이끄시는 성경공부방 이 개설 됩니다.

유요한 형제님께 신청 하시기바랍니다.

한인 공동체 이메일 개설 sanclemente.kc@gmail.com

한인 공동체의 이메일이 개설 되었습니다

교우들의 새로운 소식 등 공지를 원하시는 사항 있으면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이삭

두려워하지 마라 하느님께서는 너희 머리카락까지 세어 두셨다

송혜숙 안나 -前 서울예술대학 교수-

몇 해 전, 청소년문화회관을 개관하면서 청소년 연극제를 신부님과 함께 한 적이 있습니다. 제작하던 대학에서 청소년 연극 경연대회를 오랫동안 진행해 왔던 저의 경험을 아시고 함께 하자 제안하셨는데, 내 개인적으로는 신부님의 가톨릭적인 발상 때문에 함께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내용인즉, 제도권 밖에서 소외된 청소년들에게 연극이라는 매체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다리를 놔 주자는 것이었습니다. 대학 진학을 위한 오디션장 같은 기존의 연극제와는 달리 그 어디에도 참여할 수 없었던 청소년들에게 길을 터주고 누구에게도 속 시원히 털어놓지 못하던 자신들의 이야기로 세상에 말을 걸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회적인 이슈로 크게 회자되었고 오늘날에도 변함없는 주제로 남아 있는 학교 폭력과 언어의 폭력, 가정 폭력 그리고 청소년 자살 등이 이슈로 크게 떠올랐을 때입니다.

그들이 무대에 올려놓은 세상엔 사회면을 차지했던 문제들과 질문들이 화두같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거대한 우주 속에서 나라는 존재는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와 같은 거창한 질문보다는 매일 그들이 만나는 부모님과 선생님 그리고 이웃과 친구들. 그 속에서 폭력 가해자와 피해자, 더 심각하게는 자살해서 돌아온 유령 친구들과 함께 그들이 겪고 있는 것들의 실체를 매우 솔직하게 자신들만의 언어와 행동으로 우리 앞에 내어 놓았습니다.

그 속에는 “나야! 나”, “픽 미! 픽 미!”에서와 같이 선택받음으로 써만 자신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강박증, 자신들의 눈앞에서 요구되고 있는 문제에만 너무 집착한 나머지 볼 수 없었던 세상, 미래를 향해 가야 하는 길이 너무 어두워 두려움에 떨고 있는 공포와 불신들만 있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연극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이들은 자신들의 생각이나 행

동들을 통해 드러나는 내면들과 만나면서 오히려 서로를 위로하고 신뢰의 힘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공포 속에서 키웠던 불신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어느새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있었습니다.

연극제에 참여하면서 나는 오히려 나의 실체를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길에만 집착한 나머지 내가 섬겨야 할 세상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집착의 끝에 내뿜은 가혹한 말들, 내게 보내주신 인연들을 ‘그대’가 아닌 ‘그것’으로 얼마나 많은 가시로 내뿜던 나 자신을 본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켜야 할 원칙을 세웠습니다. “내게 보내 주신 귀한 인연을 무조건 사랑하고 칭찬하고 받아들이고 기다리자”라는….

“참새 다섯 마리가 두 눈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한 마리도 하느님께서 잊지 않으신다. 더구나 하느님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어 두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수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루카 12.6-7)

<서울주보에서>

기도할 때 성호를 긋는 까닭은 무엇인가요?

가톨릭교회의 주요 기도문 중 가장 짧은 기도인 ‘성호경’은 입으로 외는 것만이 아니라 십자가를 그으면서 바치는 기도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일을 시작한다는 것은 나 자신이 하느님께 속한 존재이고, 내가 하는 기도가 하느님의 것이 되고, 내가 하는 일이 결국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 하느님이 바라시는 일이 되기를 청한다는 의미입니다. 내 기도와 일상이 온전히 하느님께 봉헌되고 수렴되기를 희망한다는 뜻이 담겨있습니다.

글_ 「교회상식 속풀이」 | 바오로딸 발행